

제 153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패전일본의 '引揚' 에쓰노그라피: 재난인류학의 관점에서

강연자: 전경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전경수 교수의 세미나가 12월 4일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국제대학원 GL 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패전일본의 '引揚' 에쓰노그라피: 재난인류학의 관점에서' 라는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전경수 교수는 일본인류학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引揚(히끼아게)'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패전일본의 상황은 311 대진재와 같이 제국의 붕괴라는 면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모리타 요시오의 '조선종전의 기록'이라는 책은 '미국과 소련이 진주한 다음 대륙으로부터의 인양'이라는 부제가 책 내용을 말해주듯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즈미 세이치라는 인물이 한번 언급되고 말지만 전 교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어떠한 한 개인이 이 제국의 붕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주목했다고 하였다.

이즈미 세이치는 경성제국대학 10회 졸업생으로 이들 사이에선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다. 종전 후 10월 2일까지는 일본의 공문서 시스템이 작동하였다고 하나, 그 후에는 미국에서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 제국 붕괴라는 상황에서도 시베리아 남쪽의 상황까지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제국이라는 것이 작동했었다. 심지어 중국에서 국민당과 모택동이 싸우는 과정에서도 히끼아게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 정보들을 이즈미가 수집하였고 다시 사람들을 보내는 등 제국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작동하였다.

백삼십만의 히끼아게사(引揚者)들이 부산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의 호로도라는 작은 섬에서 출발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 만주국에 있던 대사관 직원들이 남아서 북동 소련군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등 정보원역할을 하였다. 즉 이즈미는 하카다에 앉아서 정보수집을 하면 되었던 것이다. 거꾸로 하카다에서 경성으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환자수송열차에 의사와 간호사가 동승하여 가면 다시 돌아올 때 가운을 바꿔 치기 형식이었다. 그 중 유명한 사람이 총독부 철도국에서 홍보담당자였던 이야마 타츠오라는 사람이다. 그는 철도무료패스가 있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었는데 이즈미가 간 곳에는 항상 이야마가 동행하여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당시 기적적인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당시 경성이나 부산에 있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중국이나 한반도 북쪽 지역에 있던 일본인들은 안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각 지역의 세화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었는데 조선의 작은 지방까지 이 세화회가 일시에 피라미드처럼 조직되었다. 당시 큰 사회 문제가 폭행당한 부녀자들이었다. 45년 8월이후부터 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이 생기고 특히 젊은 여자들, 미혼녀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투신하는 등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의 료국을 만들고 이와무라 이타카가 책임자가 되었다.

전쟁 때 인구는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당시 낙태는 불법이었다. 그래서 자살이 많았는데 이즈미는 이러한 여성들에게 상담을 권유하며 후쿠오카의 후쓰카이치 요양소에서 낙태수술을 해주었다. 그 당시 법으로는 불법이었는데도 낙태 수술한 건수가 기록으로 남아있고 낙태하는 장면도 이야마 타츠오가 사진으로 남겼다. 흑인에 의해 임신이 된 검은 아이, 혹은 소련군에 의해 임신이 된

하얀 아이 등 이 비참한 광경을 순간을 전부 기록하라고 한 점은 인류학자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난리 속에서도 대단하게도 식량이나 일본 포로 상황 등의 자료들이 히키아게샤들을 통하여 하카다에있는 이즈미 세이치에게 모두 전달되었다. 지금까지도 당시의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북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데려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룹을 나누어 어디까지 오게 할 것인가 혹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함께 동행하여 데려오라는 등의 계획을 다룬 문서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제국의 시스템의 정교함을 알려주고 있다.

질의응답

질문: 연구 분야 때문에 개인적으로 히키아게샤분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중국 쪽 국민당이 장악한 지역이나 한국 남한 쪽은 편하게 넘어왔고, 중국, 북한은 많이 고생하다가 넘어온듯한데 정리하실 때 어떻게 지역적으로 정렬하셨는지 궁금하다.

답변: 지역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당시 싸움이 붙은 지역도 많았고 지역 성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질문: 지난주, 국문과 김윤식교수의 책 서평을 썼었는데 그 책에 많이 나온 이름이 이즈미 세이치이었다. 궁금한 것은 왜 이즈미가 히키아게샤를 위한 구호활동을 경성에서 하고, 후쿠오카까지 가서 한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의과도 아니고, 인문학을 하던 교수가 민간인적 차원도 아니고 이처럼 굉장히 조직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답변: 이즈미의 조부는 메이지유신 때 과거 막부 쪽에 섰다가 패한 센다이한의 지번에 소속된 무사였다고 한다. 그래서 유신 이후 갈 곳이 없자, 지번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홋카이도로 이민을 가서 유바리가 본적이 되었다. 이즈미 세이치의 아버지는 삿포로 농학교를 다니고 클락을 만난 감화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미국으로 법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가 결국 교수가 되었다. 세이치가 소학교를 다닐 당시 경성제국대학 생겨 아버지가 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세이치는 조선인 친구도 상당히 많았고, 등산 마니아였다. 당시 등산을 통해 학술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또한 등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즈미 세이치는 학문적으로는 큰 업적을 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즈미 덕분에 취직했다 할 정도로 의리가 강했다. 그러나 경성대학(식민지) 출신이 동경대 교수를 할 때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럼에도 이즈미 세이치에게 있어서 경성제대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